

- 16. *Ibid.*, p. 72
- 17. *Ibid.*, p. 80
- 18. *Ibid.*, cf. p. 58
- 19. Jaarsma, 1953, "Social Airm in Christian Education," *Fundamentals in Christian Edceation*, p. 186
- 20. *Ibid.*, p. 186~187

교회문제연구
제4집 (1985.12)
P.P. 165 ~ 183

J. B.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이 환 봉
(고신대 조교수)

성경의 권위와 본질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신학적 논쟁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토론이 결국은 이 궁극적 권위의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끝을 맺기 때문에, 성경관은 오늘날 교회내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성경을 둘러싼 논쟁이 19세기동안 사납게 휘몰아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는자와 거부하는자의 상반된 두 진영사이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문제는 표현과 신앙에 있어 아주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합중국 연합장로회(UPC, U. S. A.)가 "1967년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기 전에 일어났던 논쟁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만 하나의 역

사적 배경을 제공할 뿐인 초기 신앙고백서들중의 한 소장품 정도로서 취급하려고 하였다. 고로 당시에 UPC, U. S. A. 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교리를 이미 떠나려고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J. B. Rogers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자체에 되돌아감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그의 주요한 관심은 가능한 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the Divines)의 성경관을 재발견하여서, 그것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대한 근대적 이해와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Rogers는 이 책을 통하여 Hodge 와 Warfield와 같은 구(舊)-프린스톤 신학교(Old Prin-

cton Seminary)의 견해들과 67년 신앙고백서의 주요한 작성자인 E. A. Dowey교수를 중심한 신(新)-프린스턴 신학교(New Princeton Seminary)의 견해들 중에서 어느것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신앙과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 Rogers 박사의 책은 두 가지의 주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부는 성경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를 정당하게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취급하였다.

저자는 먼저 제 1장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교리에 대한 UPC, USA.내에 있는 신정통주의의 비평들을 논하는데 쏟았다. 그는 우선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구-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한 교회들의 입장을 지적한 후, 당시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B. B. Warfield와 C. A. Briggs 사이의 논쟁을 토론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Barth와 Brunner의 영향을 받아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칼빈의

입장을 떠나 엄격한 스콜라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던 당시의 신정통주의의 입장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생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정통주의의 견해가 과연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참되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당되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장에서 Rogers는 미국의 배경으로부터 그 방향을 바꾸어 영국의 John Wyclif로부터 시작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간결한 윤곽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칼빈의 성경관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지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7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청교도들의 사상을 지배해 왔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반 부분에서는 종교개혁과 후-종교개혁기간(Post-Reformation Period)의 지적 역사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Rogers는 여기서 청교도들이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 정당화된 “올바른 이성”(right reason)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Rogers가 주장하는 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17세기 초반까지의 청교도주의(Puritanism)는 칼빈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시의 청교도들은 이성과 신앙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으며, 또한 그 이성은 신앙에 종속된 것이었다. 즉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여전히 “신앙의 시대”(Age of Faith)에 속하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 새롭게 열린 “이성의 시대”(Age of Reason)는 신앙에 대한 이성의 우월권을 인정하게 하였으며 이성에 독립적인 영역을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초의 영국 청교도들의 신학이 17세기 중반 이후의 영국신학과 동일하지 않으며, 17세기초의 영국신학이 17세기 대륙의 개혁주의 신학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였다. (pp. 114 - 116)

제 3 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회

의 그 자체의 역사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그 회의의 시행과정과 성취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고백서의 작성을 위해 임명된 위원회를 취급한 곳이다. (pp. 154 - 176) 여기서 Rogers는 스코틀랜드 사절단의 영향과 신앙고백서 초안을 작성하는 결정적인 작업이 Gataker, Harris, Temple, Burges, Reynolds, Hoyle, Herrle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 각각의 신원과 사상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신앙고백서의 각 진술들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각 저자들의 주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그 신앙고백서를 분석할 때에 크게 유의하지 않았던 절차였으나, Rogers는 여기서 그 당시 성직자들의 사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 상세하고도 많은 자료들을 길게 취급하였다.

제 4 장에서는 1장과 3장에서 취급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제기

된 세계의 중요한 해석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즉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청교도주의(Puritanism)와 칼빈주의(Calvinism), 그리고 철학(Philosophy)에 대한 관계를 검토하였다(pp. 201~253). 여기서 그는 무엇보다 먼저 성직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요, 청교도들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철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그들이 일반적인 의미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특색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성경 권위에 대한 견해와 “올바른 이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과 구원하는 신앙(Saving Faith)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결코 어떤 합리적 논증을 그들의 신학에서 신뢰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혹 그들이 스콜라적인 논증법이나 기교를 채택하였을 때에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논증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스콜라적인 반대 세력들을 상대로 하여 싸우기 위해 다만 그렇게 이용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Rogers는 제 1부의 결론을 내렸다.

제 2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성경관을 다루었다.

성경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그 성직자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것은 그 다음 계속되는 모든 신앙고백서의 교리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 기본적으로기 때문이다. 여기서 Rogers는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 성경교리에 가장 가까운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즉 the First and Second Helvetic Confessions와 같은 대륙의 개혁주의 교회들의 신조서들과, Thirty-Nine Articles와 같은 초기 영국 신조서들의 교리적 형성을 다루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감독 Usher의 Irish Articles와 A Body of Divinities같은 자료들을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서론을 뒤따라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 1장인 “성경에 관하여”(of the Holy Scripture)를 각 구절마다 분해하였다. (pp. 264~436)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역사속에서의, 특히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위치와, 그리고 현대 신앙고백서에서의 성경의 위치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이 책을 마감하였다.

우리는 이 책의 제 2부를 읽을 때, 비로소 Rogers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그는 가장 먼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성경교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본문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석에다가 그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가능한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 신앙고백서가 스콜라적이요, 반 칼빈주의적이라는 현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절하려고 하였다. 그 반면에 Rogers는 또한 구-프린스턴 신학교의 추종자들이 성경에 무오(Inerrancy)와 독자 영감(Verbal Inspiration)이라는 용어를 적용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진술을 상당히 넘

어가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 있어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 결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견해를 그 후 구-프린스턴 신학교의 추종자들이 그 신앙고백서에 몰래 삽입해 넣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신앙고백서의 배경에 대한 집약적이고도 조심스러운 분석에 의해 시도된 Rogers의 공격은 아주 빈틈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여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의 각 절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고백서 본문에 대한 그의 검토는 그 신앙고백서 자체의 용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 고백서를 초안한 작성위원들과 스코틀랜드 사절 단원들의 기록들의 배경속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Rogers는 이러한 작업속에서 분명하게 된 그 작성위원들의 견해와 Hodge, Warfield 그리고 구-프린스턴 신학교의 견해를 비교하였다. 동시에 그는 67년 신앙고백서를 중심한 Dowe와 Leonard Trinternd의 견해와도 비교하였다. Rogers는 이렇게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의 진정한 성경관을 찾아 확립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요약은 끝내고, 이제는 이 책에서 제시된바 17세기와 20세기의 성경에 대한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과 이것에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입장에 대한 Rogers 박사의 견해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생각해야 할 첫째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 대한 신정통주의학파의 비난이다. 즉 이들은 그 성직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스콜라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사변적 방법론이 주로 그들의 성경관을 결정하였다고 반복하여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다. Edinburgh의 T. F. Torrance와 Princeton의 Dowe이 바로 이러한 비평의 주도자들이었다.

Rogers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 성직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떤 최종적인 권위로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

었다고 하였다. 다만 그 성직자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스콜라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함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안내자로 간주하였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Rogers는 분명하게 논증하였다. 그리고 Rogers는 의지의 우월성을 청교도 신앙에 귀속시키려는 R. Bronkema와 M. M. Knappen같은 저술가들의 시도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pp. 228~230)

즉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이성의 우월성도 의지의 우월성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둘 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여 있음을 주장하였다고 하였다(p. 230).

또한 이성과 의지는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행위를 경험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올바른 이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성이요, 그리고 그것은 이론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p. 231)라고 하였다. 고로 성

직자들이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 하기 위해 그리스도안에서의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지식을 위해 이론적 지식을 거부한 것을 보아서, 그들은 스콜라주의자와 합리주의자의 양 방법을 모두 부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자연계시의 문제로 나아가게 한다. 구-프린스톤 신학교, 특히 A. A. Hodge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다.(p. 27) Hodge의 이러한 해석을 받아 들이는 신정통주의의 대표자들은 웨스트민스터의 성경교리를 비 개혁주의적인, 그리고 비 칼빈주의적인 것으로 거부하려 하였다. 그러나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이 결코 자연신학을 주장한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신앙고백서의 제일 첫 문장에 위치한 ‘자연의 빛’은 인간이 그의 독립적인 인간 이성의 빛에 의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

연신학이 아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 대한 그 ‘자연의 빛’은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a sensus divinitatis)이다. 그것은 비록 파손되고 흐려져 있지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남아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p. 269). 그리고 이러한 계시의 남은 잔여 때문에 인간은 창조와 섭리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바로 칼빈의 충실한 추종자들이었으며, 결코 18세기 자연신론적 합리주의자들의 선구자들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Rogers는 후에 “영국자연신학의 전통”이 되었던 것은 Hooker와 영국국교회의 전통이었음을 지적하였다.(p. 284)

그리고 비록 인간들이 자연계시를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로 인하여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구속계시가 요청 되어진다. 그

러나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게 있어 그 특별계시는 일반계시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일 뿐이며, 계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성직자들에게 있어 특별계시는 자연계시를 넘어가는 단순히 하나의 진보적 연속과정일 뿐이었다. 그러나 특별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에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그 성직자들은 자연계시든지 아니면 특별계시 이든 지간에 좌우간 계시와 상관없는 하나님 지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Rogers의 이러한 해석은 구-프린스톤 신학교와 신-프린스톤 신학교의 양 입장을 동시에 배격하는 것이다.

특별계시의 논의는 자연히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성직자들은 단순히 신구약 성경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Rogers는 그 성경의 정경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다른 그 어떤 정경성의 표준도 구하지 아니했다고 논증하였다. 즉 그들은 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성경의 사도적 저작권을 입증하는 식의 정경 결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방법이 성경의 저작권으로부터 정경성을 증명하려 하였던 E. D. Morris와 A. A. Hodge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ogers는 정경 결정에 대한 성직자들의 그러한 접근방법이 바로 16세기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과 칼빈과 함께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p. 297)

동시에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무오성”(Inerrancy)에 대한 주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 용어는 19세기 자연신론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프린스톤 신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신앙고백서에 진술된 바에

로 성경은 진실하며, 정확무오(Infallible)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이 용어들과 ‘Inerrancy’의 근대적 개념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성직자들의 사상에는 없는 어떤 증거의 표준들과 변증적 암시들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p. 307) 이처럼 근대 성경 옹호자들은 과학적 비평주의 이전시대에 살았던 그 성직자들이 결코 취급하지도 않았던 한 교리의 출처를 그 성직자들에게 돌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하였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논란은 즉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직자들의 견해에 관하여 질문하게 한다. Rogers는 이 점에 대해 그 성직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매우 정확하고 명백하게 논증하였다. (pp. 309~313)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거가 아니라 자연계시가 죄로 인해 흐려졌기 때문에 상실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들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음을 강조하였다. (p. 312) 또한 성경은 어떤 종교적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들이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게 있어 상실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있는 구속의 말씀이었다고 하였다.

Rogers는 신앙고백서 1장 5절을 성경의 권위문제와 관련하여 토론하였다.

여기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외적 증거의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였다. (pp. 314~320)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내적 역사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인간들은 성령과 말씀의 연합에 의해 성경의 신적 저작권과 그 권위를 인식하게 되며, 성경은 자

확증적(self-authentication) 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확증되어 진다고 하였다. 고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안에 있는 그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인식하도록 인간의 눈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p. 324)고 하였다.

이것으로 부터 Rogers는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이 칼빈과 매우 밀접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pp. 324~326).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취급하면서 Rogers는 두가지 다른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pp. 326~369)

그 첫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성경을 이해하느냐?”는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Rogers는 그 성직자들의 성경이해의 표준은 교회나 전통같은 외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 성경의 권위와 맺세지를 바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령을 통한 이해는 단순히 성경의 신적 권

위를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동시에 그 성경의 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의 중심 목적이요, 그리고 그것은 중생된 이성에 의해 성경에서 인출되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기도 하다. 고로 그러한 정당한 인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야만 했고, 성경의 원리를 연구하고 성경과 비교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안에서와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 성경의 단일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서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Rogers는 주장하였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성경의 중심적인 관심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영역안에 있다고 한다면, 생활의 다른 면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여기에 대해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교회

질서와 행정에 관한 것조차도 기독교의 사려분별과 자연의 빛에 의해 통제받아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 성직자들은 이것을 말함으로 “자연”과 “은혜”의 두 영역을 주창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어떤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안에 살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감화를 받는 기독교신자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을 뿐이었다. 이 점에 있어 Rogers는 스코틀랜드 사절단들이 영국의 성직자들과는 무언가 다른 견해가 있었음을 주시하였다. 즉 스코틀랜드 사절단들은 성경이 “장로회의 신성한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그리고 Rogers는 당시에 성직자들이 서로가 동일한 해석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자들이 성경해석시에 모두 객관적으로 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너무나도 낙관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직자들은 사람들이 만약 일관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성경

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에 이를 것이며, 또한 영생을 얻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성경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말씀만이 역사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대한 지식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Rogers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관하여 논한 다른 면들을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앞에서 정리한 것으로 이미 그의 주요한 원리적 관심은 다 살렸다고 생각한다.

Rogers는 그가 제시한 증거들과 강조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신앙고백서 제1장에 대한 구-프린스톤 학파와 신-프린스톤 학파의 양 견해를 동시에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Rogers는 두 학파가 다같이 잘못된 출발점으로 부터 신앙고백서에 접근하였으며, 그 결과로 그 성직자들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였다고주

장하였다.

Rogers의 주장은 구-프린스톤 학파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성경 문서들의 무오한 복사를 믿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성직자들의 성경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Hodge와 Warfield같은 분들이 18-19세기의 이신론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이런 잘못을 범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권위에 대한 견해를 객관적 과학적인 어떤 기초위에다 두기를 원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히 그들로 하여금 그 성직자들의 중요한 강조점을 무시하게 하였다고 했다. 즉 구-프린스톤 학파들은 칼빈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유산인 성령의 증거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경의 정확성과 권위를 위해 합리적 증거들의 사용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Rogers는 1장 6 절의 주제를 A. A. Hodge와 같은 주석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성경의 “충족성” 또는 “완전성”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전 목적인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the glorifica-

tion of God in man's salvation)으로 보았다.(p. 327)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19세기의 미국장로교 주석가들은 신앙고백서의 이 구절에 관해서 성경이 주어진 중심목적으로서의 인간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p. 331) 그리고 그는 계속 논박하기를 A. A. Hodge는 이 6절을 강해할 때 “영감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실제의 완전한 규칙이다.”라고 하여 성경을 인간의 모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백과사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신앙고백서의 핵심적인 관심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이 6절과 관련하여 “성경의 목적을 삶의 전 영역에 대한 보편적 인도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입문으로써 생각하였다고” 논증하였다.(p. 452, cf. pp. 327~333) Rogers는 이러한 논증들을 통하여 A. A. Hodge와 같은 구-프린스톤 학파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원래 목적

하고 계획한 것들을 변질시키거나 훨씬 넘어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Rogers는 신-프린스톤 학파의 옹호자도 이념을 알아야 한다. 신-프린스톤 학파의 Dowey와 Duduque의 Cochrane 같은 사람들이 성경관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다른 초기 고백문서들 사이를 구별 지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뿐 아니라 초기 신앙고백서들 까지도 잘못 해석하였다고 Rogers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프린스톤 학파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칼빈의 입장을 떠났다고 비난한 것에 반하여, Rogers는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입장이 칼빈과 16세기 중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의 입장과 동일함을 매우 분명하게 잘 나타내었다. 그는 또한 Dowey와 Cochrane가 것처럼 길을 잘못 든 이유는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진술을 구-프린스톤 학파의 안경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에 대한 신정통주의 학자들의 비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들은 심지어 그 성직자들이 강조한 진술들조차 생략해 버리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cf. p. 387)

그러나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Rogers가 UPC, U.S.A.의 67년 새 신앙고백서의 저자들을 논박한 것이다. 즉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새 신앙고백서의 원래의 본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어졌을 뿐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제외시킴으로써 성경본문과 성경의 중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였다고 논박하였다. (p. 453) Rogers는 이것에 대한 답으로 “성경의 본문은 그 성경의 구원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하고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p. 454)

그러면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성경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는 양 프린스톤 학파를 모두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구-프린스톤 학파와 신-프린스톤 학파의 중간노선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전-과학적(pre-scientific) 이오 독립적인 이성의 시대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한동안 교회를 괴롭혔던 Strauss나 Baur 같은 근대 비평주의자들과 Kierkegaard와 같은 사상의 유형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과학과 그 발견들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고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적, 경험적, 영적 문제들을 성경에 비추어 잘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고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미래의 시대에 사용될 어떤 변증적인 문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한 것보다, 오히려 그들은 칼빈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냄으로서 성경관에

있어서도 칼빈의 입장에 가깝게 머물러 있었다고 Rogers는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의문스러운 것은 Rogers의 이러한 입장이 과연 정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물론 그의 역사적 연구는 폭넓고 깊은 자료들을 통한 압도적인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견해에 대한 그의 해설을 지지하도록 하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Warfield와 Hodge의 저술과 사상에 대한 그의 분석도 매우 세밀하여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1장 6절의 해석에 있어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실제 의도한 바 그 이상을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6절의 주제는 성경의 목적을 밝힌 것으로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6절은 그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Warfield나 Hodge가 밝혔던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도 분명히 말하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Herman Bavinck도 이 6절이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perfection of sufficientia)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performance Dogmatiek, vol. I, 1967, p. 461). 그리고 Rogers는 성경의 목적인 구원내용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성직자들에게 있어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는 백과사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The Church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Biblical Authority, 1977, p. 34).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성경의 완전성과 무오교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성경이 주로 의도하는 바는 구원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이며 형식적인 세목들은 전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왜곡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있어 Rogers는 분명히 “구원내용”(saving content)과 “구원맥”(saving context)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둘을 성경속에서 서로 불가분리하게 엮어져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cf. John H. Ge-

roster, “the church’s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1978, p. 440).

그리고 만일 당시의 성직자들이 19세기의 구-프린스톤 신학교 교수들의 입장에 직면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들도 역시 무오성(Inerrancy)에 대하여 Warfield와 동일한 입장을 주장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Warfield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저서들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그들의 사상이 분명히 성경의 무오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John Ball은 그의 교리문답에서 “성경의 원본은 내용과 단어에함께 영감되었다”고 하였고, S. Rutherford는 모든 성경은 오류와 잘못으로 부터 보존되어 하나의 영향력 아래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Richard Capel은 “성경의 저자들은 무오한 성령으로 감동되어 실수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그리고 Richard Baxter가 “어떠한 오류도 모순도 성경안에는 없다”고 말한 그들의

무오사상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였다(cf.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1972, pp. 261-333). 사실상 Rogers가 이 책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S. Rutherford와 같은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은 당시 영국 성직자들보다 Warfield와 훨씬 더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cf. pp. 363-367).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배경을 가진 구-프린스턴 신학교는 틀림없이 Rogers가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바로 그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의 전통을 따랐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이 비록 “무오”(Inerrancy)라는 단어 그 자체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상당어귀들만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분명한 가르침임을 확신한다.

또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Rogers의 67년 새신앙고백서에 대한 낙관적 태도이다. 그는 1966년 5

월 총회에서 다시 개정된 고백서의 성경관은 아주 건전하며 UPC, USA.의 신앙고백서집(*The Book of Confessions*)은 이전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다고 생각한 것 같다. Rogers가 생각하기로는 1967년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의 견해가 구-프린스턴 학파들보다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에게 약간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정말 편견없이 그 새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교 연구하였다면, 특히 성경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새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Cornelius Van Til은 1967년 신앙고백서에 대해 이렇게 논평하였다. “이 신앙고백서는 주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어졌다. 그것은 정통주의 성경관을 근대 과학과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시대에 낙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 George Hendry와 같은 이들에 의해 작성되어졌다. 이 신앙고백서의 신학은 Barth신

학과 같은 주제주의(Actiivist)이다.”(Cornelius Van Til, *The Sovereignty of Grace*, 1967, p. 75).

특히 새로운 성직 안수식의 문제들을 검토해 볼 때, 이 새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증거로서 작성된 것이라기 보다는(p. 436). 오히려 장로교 목사들을 어떤 궁극적인 성경적 권위로 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Rogers는 그가 건전하다고 생각한 새신앙고백서 개정판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진다”라고 한 것은 Barth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is)”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고 함으로 Barth의 성경관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새신앙고백서 개정판은 성경본문과 성경의 구원내용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건전하다고 논증한다. 물론 우리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본문과 성경내용의 일치를 주장한다. 그러나 Rogers가 여기서 말한 그

성경은 Barth가 말한 의미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cf. Karl Barth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은 Van Til의 “Has Karl Barth become Orthodox?”를 참고할 수 있다).

신조서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방법은 교리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신조서들의 역사적 제한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오히려 모든 교리적 진술들을 상대화시키는 위험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Rogers가 지도를 받은 G. C. Berkouwer교수가 Dordt 신조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 그의 성경관의 변질을 가져온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cf. G. C. Berkouwer의 이러한 성경관의 변질에 대한 비판은 Van Til의 “The Sovereignty of Grace”를 참고할 수 있다).

Rogers도 이 책의 연구의 기반을 신조서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두고 있다. 그는 신조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은 불가피하게 그들 시대에 철학과 다른 여러가지의

영향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주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신앙고백서도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p. 455) 그래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해석하면서도 역사적 이해에 계속 호소하면서 당시 성직자들이 이 6절을 통해 참으로 의도한 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사실상 G. C. Berkower 교수와 같이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그 고백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교리의 체계를 무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자연히 Warfield와 Hodge가 주장한 성경의 총족성과 완전성에 대한 교리를 간과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조서에 대한 역사적 연구방법은 필요한 것이며, 또한 교리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신앙고백서들의 역사적 제한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찍부터 우리가 진리

로 믿어왔던 교리들을 포기하게 하며, 이단계에 대한 이론적인 변증의 약화를 가져오는 위험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이 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할 것은 활자식자공과 교정을 본자들의 실수가 많이 나타난다. Spelling의 인용문 배열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 필요 없이 동일한 주(註)들을 계속 나열한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한문단에서 저자는 약4~5개의 동일한 책, 동일한 면에 언급을 연속적으로 하였다.(p. 317, 318) 아마 저자가 1년 정도 이 책의 출간을 연기한 후 그의 학위논문을 제출했다라면 이런 점에서 완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놀라운 연구서적이다.

저자는 참 의욕적으로 전 세계의 장로교회들을 들끓게 했던 근본적인 문제점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써름하였다. 그 결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보다

밝은 이해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하게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서에 대해 보다 총괄적인 역사적 연구를 자극하였고, 많은 비평들로부터 그 신앙고백서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와 갈채를 받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보수주의자”들을 혼란시켰고 또한 “자유주의자”들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 이유때문에 Rogers는 많은 반대적인 비평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이책에 나타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은 계속적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어떤 정확한 신학적 기술이나 체계를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앞세우기 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 입장을 파악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교리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연구논문을 써야 하겠다는 자극을 받았다.